

주주환원 늘리고 新 동력 확보 사명 변경 등 이미지 변신까지

주요 건설사 주총 돌입

삼성물산, 배당 확대안은 부결
2026년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

DL이앤씨, 순익 25% 주주 환원
실적악화로 배당금은 500원 ↓

GS건설, 허윤홍 사장 사내이사로
배당절차 선진화 위해 정관 변경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했다.

건설사 역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함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신사업 등으로 수익을 다변화하기 위해 아예 사명까지 바꿔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겠다는 곳도 나왔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이 지난 15일 주총을 마무리했고, 현대건설(21일)과 DL이앤씨(21일), 대우건설(28일), GS건설(29일), HDC현대산업개발(28일) 등이 주총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들이 제안한 배당 확대안은 부결됐다. 행동주의 펀드는 보통주 주당 4500원, 우선주 주당 4550원 배당안과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다.

삼성물산 측은 “주주제안상의 총 주주환원 규모는 1조2364억원으로 2023년 뿐만 아니라 2024년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당사의 잉여현금흐름의 100%를 초과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배당은 당초 회사 측이 제안한 보통주 주당 2550원, 우선주 주당 2600원으로 통과됐고, 자기주식은 보통주 총 781만주와 우선주 전량인 16만주 등 시가로 약 1조원 이상 규모를 소각키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주총에 앞서 오는 2026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내놨다. 올해부터 연결 순이익의 25%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며, 현금배당과 자사주 취득으로 각각 10%, 15% 수준을 제시했다.

다만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도 작년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당 배당금은 보

통주 기준 500원으로 전년 1000원 대비 낮아졌다. DL이앤씨는 이번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도 도입한다.

GS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허윤홍 사장을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허 사장은 허창수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달 주식을 증여받아 지분을 3.89%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GS건설 이사회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약적인 발전 및 기업가치 제고를 이뤄냈다”며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회사내 내부사정에 정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이해도와 전문성이 높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해 정관을 변경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금배당을 주당 700원으로 전년 600원 대비 늘려 주총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사명 변경도 추진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이앤에이(E&A)로 상호변경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SGC이테크건설도 이번 주총에서 사명을 SGC이앤씨로 바꾼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한화손보 女특화보험 출시 등 나채범號 차별화 브랜딩 결실

차별화와 업무협약 시너지 효과
여성 특화·서비스 강화 상품 통해
난소나이 측정 검사도 최초 선배



한화손보가 여성을 위한 보험사라는 브랜딩에 나설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나채범 대표이사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취임

1년째를 맞는 나 대표는 한화손보를 여성 특화 보험사로 변모시킨 1등 공신으로 꼽힌다.

나 대표는 지난해 3월 한화손보 대표이사로 선임돼 여성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6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연구와 여성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여성 중심 사업의 싹크랭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LIFEPLUS 펠테크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장으로는 맥킨지 마케팅 담당, 현대카드 브랜드 총괄 등을 역임한 한정선 전 VISA 마케팅 총괄을 선임했다. 펠테크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이화의료원과 펠테크 협력을 모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여성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판매 8개월만에 신계약 매출 기준 1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월엔 월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장에서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월 2월까지 신계약 건수는 12만5600건을 기록했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20·30 연령대 여성 고객의 가입 성장률은 약 73.6%를 나타내는 등 대표적인 여성 특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나채범 대표이사 취임 후 여성 전문 보험사로 여성을 잘 아는 보험사를 모토로 브랜딩하고 있다”며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지속가능 성장 위해 경영·상품·채널·신사업 4대전략 수립”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간담회
소비자 상생·동행 노력 한층 강화

“생명보험업계는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가 존립기반임을 굳게 명심하고 소비자들과의 상생, 동행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2024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영, 상품, 채널, 신사업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세부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생보업계, 금융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경영전략’으로 보험규제 혁신과 생보업권에 적용되는 예보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많은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생보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회사 및 부수업무 관련 등 남아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협회장이 19일 ‘2024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있는 규제개선과 생보업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분야’에서는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 역할 강화와 제3보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적 연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금융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생보업계 입지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제3보험시장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업권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권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채널전략’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합리적인 모집수수료 체계도 마련한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신사업’ 진출도 확대하고, 생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초고령화,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헬스케어·요양·실버주택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했다.

김 협회장은 “보업계는 시장포화 성장에 정체를 가둔 채 저출산,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엄중한 거시환경 변화에 직면했다”며 “협회는 생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성장 전략을 검토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기업은행 최고 연5%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일시납 가입자 대상 1인 1계좌 가능

IBK기업은행은 IBK청년도약계좌 일시납 가입자를 위한 신상품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와 일시납 서비스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약 1300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50만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최고금리는 연 5.0%(세전)로 기본금리 연 4.0%p에 IBK청년도약계좌를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 만기 시점까지 유지하면 연 1.0%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B금융 ‘천원의 아침밥’ 사업 본격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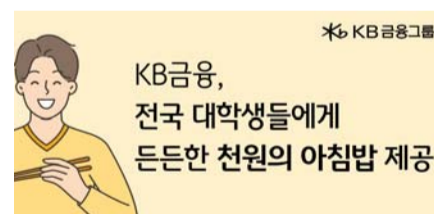
전국 주요 대학교에 10억 지원

KB금융그룹은 전국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KB금융은 경기, 강원, 경북·경남, 충청, 호남 등 전국 각 지역 주요 대학교에 총 10억원을 지원해 총 100만명분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두번째 프로그램이다. ‘천원의 아침밥’ 결실을 59%에 이르는 청년층들이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전국 지자체·대학교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진행중인 사업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청년들 양질의 아침밥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쌀 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본다”며 “고물가 시대에 부담도 덜고 든든



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첫번째 프로그램인 ‘KB 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B금융은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생금융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더불어 KB금융은 청년층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